

제 5 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 상 옥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 창의적, 도덕적,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정과 교육에서는 남녀학생들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물론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길러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정교과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의 동향에 맞는 교과목표가 설정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내용이 개발되고 가정과 교사가 투철한 교육철학을 갖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철학은 무엇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지침이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 자주성, 자유, 공동목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 등에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좀더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로서 다음과 같이 교육내용의 개발, 교수방법의 개선, 교사의 역할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정과 교육내용의 개발

가정과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기술혁신은 생활에 필요한 기기에다 혁신을 가져

와 전자화의 물결은 가사를 전자장비가 처리해 주는 가정자동화(Home Automation)의 시대를 열 전망이다. 가정자동화시스템은 가전제품, 전화기, 경보기, 비디오모니터, 이들을 제어하는 핵심장치와 단말기 등으로 구성되고 가정에 로봇까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볼 때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과의 내용이 사회변화를 따라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사회변화와 관련되는 문제로 교육내용에 강화시켜야 할 것은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가정교과의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이나 에너지절약은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식·주 전반에 걸쳐 매일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시간,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의 보편화에서 점차 편부모가정, 무자녀가정, 이혼독신자가정, 어린이만의 가정, 노인만의 가정, 동거가족 등 비표준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가정학의 각 영역에서 새롭게 연구되어 학회지 등에 발표되는 것을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창의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획일적 교육이 아닌 교육내용의 다

양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의 적성, 관심, 성취수준, 장래희망이 다르고 배경이 되는 학생 가족의 직업, 종교, 경제수준, 가족구조가 각각 다르므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고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운영능력은 물론 직업과 관련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 현재보다 적극적인 직업탐색 내지는 준비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살려서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준비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현재의 상업고, 공업고, 외국어고등학교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컴퓨터고, 연극고, 무용고, 공예고, 사진고, 디자인고, 비서고등학교 등으로 특성화시켜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완성해서 사회에 배출시키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발상에서 볼 때 가정교과의 의·식·주·가족 아동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직업과 연결시킨 교육내용을 교과서에서부터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교과서의 각 영역을 다룰 때 관련된 직업 등을 소개해 주고 현장견학, 숙제를 내주어 스스로 탐색해오는 기회 등을 부여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2. 가정과 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수방법의 개선

초 중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기술의 혁신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다변화되어가는 세계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나가서 미래의 주인이 될 인간교육의 방향은 인간역할교육과 문제해결 능력배양에 두어서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방법이 교육현장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방법의 개선이 더욱 절실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이번에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 실과에서 가정과 시간수가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50%가 줄었고 중학교는 1, 2, 3학년 전체 최소 11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줄었으며 고등학교는 가정이 필수 선택에서 선택과목으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가정과 교육에서 설정해 놓은 교육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시간수가 늘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수가 줄었다는 것은 과거에 해오던 방식인 교과서 내용을 판서해주고 설명하는 수업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과 교사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①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목적에 맞는 다양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고 참신한 자료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경험을 확대시키므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교실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자료에서 교과서, 자율학습교재, 신문잡지 발췌자료, 사진, 그림, 슬라이드, 비디오, T.V.,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진이나 그림은 가정과 수업의 모든 영역에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주택, 실내장식, 기구설비, 식품조리, 의상, 소비자교육, 가족생활관련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다.

사진자료는 교사나 학생이 잡지, 달력 등에서 수집하는 외에도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는 단원의 내용과 관련있는 사진을 찍어오는 숙제를 내주면 더욱 고무적이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찍어오거나 어울리는 옷입기, 바른자세 등을 찍어서 두꺼운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설명을 쓰게하고 일정기간 교실 뒤나 복도에 전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진자료들은 의, 식, 주, 아동, 경제 등 분야별로 화일 상자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학기에 다시 사용하고 새로 보충하고 오래된 것은 버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자료가 많이 모이면 사진, 그림자료 도서실까지도 꾸밀 수 있다. 시 각자료 중에서 투영되는 교재인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은 움직임과 관련있는 수업 예를들면, 음식만들기, 소품만들기, 자녀 양육등을 가르칠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슬라이드는 교사나 학생이 사진제작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상업방송, 교육방송을 직접보는 방법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한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집안 꾸미기, 음식만들기, 다른나라의 가정생활 다큐멘터리, 자녀양육, 의상, 가족관계를 다룬 좋은 드라마등을 가정과 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텔레비전 방송국 사업

부에서 방영했던 것을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놓고 판매하므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시각자료들은 교사가 현장교육을 하면서 계획하고 내용을 구성하면 교육자료와 관련있는 사업을 하는 곳에서 전문가가 제작을 하여 공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교수방법의 개선

1995년부터 새교과과정이 전국의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적용되어 가정과 교사들이 새로운 발령을 받아가서 가르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학계에서 20여년간 가정교과를 남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러한 변혁을 주도해 온 가정학자, 가정교육 전문가, 가정과 교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정과교육을 받은 남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이 가정과교육을 남학생에게 왜 진작부터 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활에 유용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과목은 처음보았다고 감탄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가정교과를 여학생에게 가르쳐온 결과를 볼 때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가정교과를 매력있고 참심한 교과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방법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앞서야 할 것이다.

가정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은 교사 주도의 전통식방법외에 토의방법, 실험실습방법, 연극방법, 컴퓨터보조수업(CAD) 등이 있다.

교육학에서 권장하는 이러한 수업방식들은 지금까지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시키고 다소 변형시켜서라도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교수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수업방식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업방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토의방법은 남녀공학의 경우 남녀혼성으로 5개 그룹 정도로 나누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택하여 그룹별로 토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제는 “자신의 용돈 관리”, “바람직한 아버지상”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실습방법에서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여 식품첨가물, 유해물질을 찾아내는 간단한 실

험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실습실 작업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의 기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관리기술 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정과 수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이다.

연극 방법에는 역할놀이, 무언극, 촌극 등이 있으며 가면 손가락 인형, 꼭두각시인형으로 공연하기도 하는데 가족관계단원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조부모, 부모, 자녀)을 각본에 따라 짧은 시간 즉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역할놀이는 가족생활 교육에 효과적이므로 예행연습이나 무대장치없이 학생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대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 보조수업에는 훈련, 연습, 개인교수, 모의 실험형태가 있으며, 개인교수형태로는 영양과 식품, 의복재료, 의복선택, 가정관리 등의 실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모의실험형태로는 식단짜기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 식품의 영양가, 비용, 나이별 필요량 등을 산출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개발원의 위촉을 받아 컴퓨터 전문가들이 가정과 수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내고 있으므로 컴퓨터 보조수업이 점진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3. 가정과 교사의 역할

교사는 교육과정을 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가 교과서나 지도서를 다루면서 국가차원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교과서 단원의 순서, 내용, 제재 등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수전략을 세울때 현대생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남녀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학습경험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 걸쳐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가? 오류가 없이 정확한가? 원리, 개념, 일반성이 강조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대해 갖게되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얻은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 보완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온 수업시간의 부족, 실험실습실 기구설비 부족, 실습비의 부족, 학부모의 이해 부족 등을 부분적으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가정과 교사는 가정학 관련학회(가정학회, 의류

학회, 복식학회, 영양학회, 식품조리학회, 가정관리학회, 가정과교육학회 등)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일년에 한두번 어떤 학회에라도 참석하고 학회지를 구독하여 최근의 연구동향과 연구결과를 현장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중 고등학교의 다른 교과목 담당교사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학문의 발전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야 가정과 교육도 같이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